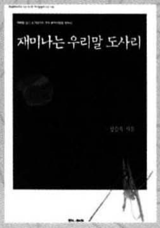
이달의 책 후보에 오른 책들

《위장된 학교》 김영덕 지음 | 인물과 사상사 | 360쪽 | 값 10,000원

독일에서 공부한 사회학자의 눈으로 우리 교육의 병폐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를 극복키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한 책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배움의 또 다른 정의〉, 〈패거리 질서를 떠나서〉 등을 통해 한국 교육의 금기를 파헤치며, 처방과 진단을 곁들인다.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 장승욱 지음 | 하늘연못 | 528쪽 | 값 15,000원

벙충해나 바람에 의해 떨어진 열매, 또는 못자리에 난 어린 잡풀을 순우리말로 도사리라고 한다. '심쌀과 윱쌀' '총각김치와 홀아비김치', '부스러기와 끄트러기', '귓불과 귓밥' 등 도사리같되 소중한 순우리말 어휘 4,793개의 속뜻과 본뜻, 쓰임새를 소개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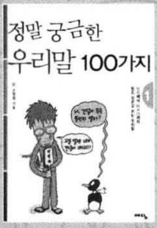


《정말 궁금한 우리 말100가지》 조항범 지음 | 예담 | 212쪽 | 값 9,000원

갈매기살은 갈매기 고기가 아니다. 뒷구멍으로 어떻게 호박씨를 깔까. 벽창호는 벽에 붙이는 창호지? 우리가 흔히 쓰면서도 정작 그 어원이나 배경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 우리말을 삽화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썼다.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이춘길 지음 | 서울대출판부 | 186쪽 | 값 15,000원

한글을 읽을 때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한, 매우 실험적인 책이다. 저자는 글줄을 따라 시선이 같은 속도로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전제, 시선이 머무는 순간의 간격과 읽어내는 글자수 등 수리과학적 분석을 한글 읽기에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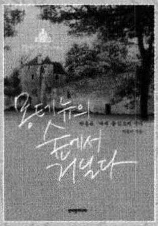


《몽테뉴의 숲에서 거닐다》 박홍규 지음 | 청어람미디어 | 336쪽 | 값 12,000원

서구 지성의 상징, 몽테뉴를 사유하며, 그의 불후의 저서 '에세'를 고찰한 책이다. '왜? 지금 몽테뉴인가'를 전제한 이 책은 대사상가 몽테뉴의 저술세계와 철학, 그의 사상적 궤적을 시공간적으로 탐구하고, 21세기적 의미를 되새긴다.

《내 생의 적들》 이인휘 지음 | 실천문학사 | 312쪽 | 값 9,000원

평범한 회사원도 학생도 아버지도, 남편과 아들도 어느 날 재수가 없다보면 시대의 질곡과 덫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책은 광주항쟁의 피울음과 보안법의 서슬이 시퍼렇던 한 시대를 전언, 그로부터 연유된 우리 모두의 우울한 자화상을 삼자적 화법의 소설로 엮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전영우 지음 | 현암사 | 416쪽 | 값 19,500원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서와 역사적 기운이 함께 서린 한반도의 대표적 식물이다. 책은 저자가 3년 동안 전국의 주요 소나무숲 29곳을 다니며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소나무와 관련한 역사, 문화, 생태, 환경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살아있는 우리 신화》 신동흔 지음 | 한겨레신문사 | 334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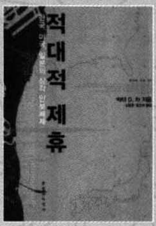
그리스·로마 또는 중국과 또 다른 우리 신화의 맥을 짚고, 전승지역과 구연자별로 자료를 체계화한 책이다. 당금애기와 바리, 영웅스런 수명장자와 강림도령 등 화려하지 않되 자연스럽고, 신이자 인간이었던 신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민족의 본원적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탐서주의자의 책》 표정훈 지음 | 마음산책 | 284쪽 | 값 11,000원

'책을 읽고 쓴다. 고로 존재한다'. 본래적인 책에 대한 욕망과, 탐험. 이를 일컬어 지은이는 '탐서주의'라 칭했다. 이 책은 읽고 표현하고, 기억하고, 성찰하고픈 이른바 문·사·철의 기록이다. '인간은 책과 문장으로 성숙한다'는 제언과 함께 호모비블리쿠스의 사유도 곁들인다.

《적대적 제휴》 빅터 D. 차 지음 | 김일영·문순보 옮김 | 문학과지성사 | 538쪽 | 값 24,000원

동아시아문제에 정통한 저자가 동맹이론을 토대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 예리하게 해부한 책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적대감에도 불구, 주변국이나 북한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적대적 제휴'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 한국의 안보문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달려라 그림책 버스》 김서정 외 7인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88쪽 | 값 8,500원

원주 패랭이꽃 그림책 버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해 일곱 명의 글 작가와 일곱 명 그림 작가가 함께 지은 책이다. '김밥이랑 깡통이랑', '미나울림', '아빠, 십자수를 놓다' 등 일곱 이야기 마당엔 부모와 자식 간,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 등 작고 예쁜 이야기들이 수놓아져 있다.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 문화》 고석규 지음 | 서울대출판부 | 338쪽 | 값 15,000원

목포는 한 지방도시 이상의 시·공간적, 그리고 인문지리적 함의를 지닌 곳이다. 책은 목포란 도시의 생성과 발전, 역사, 주민 생활상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도시발달과 주거문화, 공동체적 삶의 모습, 역사적·시대적 변수와 개체적 삶과의 함수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